



1.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는 스님과 재가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2.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김영국 총책특보, 박광서 교수, 현각 스님(사진 왼쪽부터). 3. 이날 토론회는 불교계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 불교계 대선후보초청

11월 21일(수) 오후 2시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주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계 대선후보초청토론회 준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정책기획단,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불교...

정동영 · 문국현

## “불교정책 제안 대부분 수용”

**사회자** 이번 대선의 시대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국현** 경제를 살리되 전혀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다. 사람을 중시하고 일자리 늘릴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또한 부패 없는 정권을 탄생시키는 것이 시대적인 의미이다.

**정동영** 대통령이 되면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도록 하겠다. 또한 외국투자를 끌어들이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팀장이 되어 부처 장관들과 함께 캐나다 인도 등유럽 등으로 가서 기업인들과 만나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겠다.

**#불교관계법 분야**  
**김영국** 후보들의 근본적인 문화유산 대책은 무엇인가?  
**정동영** 사찰의 중립규제를 풀어 나갈 것이다. '문화유산부' 설치 논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교문화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면 되고, 규제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장관급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교계 어른들과 잘 의논하겠다.

**문국현** 불교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문화영역에 깊이 들어와 있다. 문화재 예산을 15퍼센트까지 증액하고, 사찰 주변 넓은 지역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

**김영국** 문화유산 관리는 불교계에 자율로 맡기고 불교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불교인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생각은 없나?  
**문국현** 전체 문화재 대부분이 불교유산이다. 인사추천 시 불교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불교계에 전문가도 많고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꼭 인사가 반영할 것이다.

**정동영** 사찰과 불교문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절차에 관련하는 위원회에 불교계 추천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유산 관리, 국립공원 관리에 불교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각 스님** 문화재 예산 증액을 말했는데 구체적인 예산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국현** 내년 우리나라 예산은 258조고 그 액수 중 10퍼센트 정도가 건설부패로 소외된다. 이렇게 줄인 25조를 교육 양육 무상교육 지역대학 등에 지원할 것이다.

**정동영** 템플스테이 예산이 내년도 165억 원 책정됐는데, 최근 신청건 등으로 100억으로 삭감됐다. 그런데 대통령직선제 운영료 의원이 165억으로 되실리는 정책을 내 놓았다. 불교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 봐 달라.

**#문화·문화재 분야**  
**박광서** 우리나라를 문화국가, 문화대국으로 일컫게 세울 계획은 무엇인가?  
**문국현** 정부 혼자 하서는 안 되고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같이 국민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동영** 다음 정부는 문화정부, 문화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겠다. 앞으로 문화 르네상스분야에 일하는 젊은이가 100만명이 되도록 하겠다. 그 문화콘텐츠의 뿌리는 불교에 있다.

**현각 스님** 불국사 <무구정광다라니경> 오대산 판본, 조선왕실의례 등은 제자리 찾기 못하고 있다.  
**정동영** 오대산 판본은 선조들이 사대 서

### 불교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열려

시방세계는 지금 대선 열기로 가득하다. 대선후보들은 지역을 돌며 '유세 전쟁'을 벌이는데 각계 각층의 유권자들을 만나 공약을 내걸고 있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대선후보들의 불교관련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2007 불교계 대선후보초청 토론회'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령직선제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만 참석했다. 사회는 박상병 불교TV 시사토론 진행자가 맡았고, 패널로는 현각 스님(영남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서 교수(서강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김영국 조계종 총무원장 총책특보가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불교와 관련해 불교관계법, 문화·문화재, 환경, 사회복식, 종교정책 등 5개 분야에 걸쳐 질의가 이뤄졌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고에 보관한 것 아닌가.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 같다. 문화재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이번 부분을 국가가 정부가 책임지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국현** 원소유자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세계적인 추세다.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도 같은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한 단계 나아가 훼손된 문화재들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문화재로만 보지 말고 문화 자원이자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간주하고 복원해야 한다.

**#환경·생태 분야**  
**현각 스님** 가야산과 지리산, 경주권역은 역사·문화·종교·환경 가치가 우수한 복합유산이다. 복합유산의 보존방법, 어떤 것이 있나?  
**문국현** 지금 문화재 보호법은 공간 위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재의 주변까지 같이 관리해야 한다. 사찰에 대한 규제 때문에 안 되던 것을 완화하고 도시와 산촌, 그 안에 불교가 같이 갈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동영** 복합문화유산으로서 설악산과 지리산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지원

토록 하겠다. 수원 용주사 옆에 대형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고 전통사찰 주변으로 송전철탑 들어선다. 공사의 효율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마인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분야**  
**박광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다. 복잡한 사회에서 스트레스나 사회적 집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것을 정책으로 펼 수 있을까?  
**정동영** 현대인들은 너무 가진 것이 많다. 절에 가보면 없는 것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낀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소중한 가치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자연이고 사찰이다. 템플스테이 등 정신문화와 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문국현** 템플스테이만으로는 안 된다. 산림체험이나 숲 해설 등과 함께하는 이원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럴 때 불교문화유적이 불교신자나 어르신들만 찾는 곳이 아니라 미래세대인 학생들까지 함께 찾는 곳이 될 것이다.

**김영국** 불교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키우면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동영**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국가권력과 정부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불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리보존을 정부가 지원하고 제일 잘 아는 불교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국현** 통합적 관리기구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단 분다. 문화재의 주변도 고려해야 한다. 국립공원이나 산림청하고도 협력하고, 환경부에도 관련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

음에 문화재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종교정책 분야**  
**김영국**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종교브리핑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있나?  
**정동영** 종교브리핑은 당연하다. 국민이 믿는 종교를 내가 믿는 종교처럼 받들겠다.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종교편향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문국현**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도 지도층이 대체로 지키지 않는다. 법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 품성이 바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박광서** 교육부 등이 별책조항이 없어 일부 종교사찰 문제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정동영**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근거조항이 없다면 만들겠다.  
**문국현** 초중등교육 관련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선택권이 학교에 진화했는데 종교를 강요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

**사회자** 마무리 발언을 해 달라.  
**문국현** 귀중한 시간 함께해준 불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진정한 경제성장과 문화환경 여건 교육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로 가는 길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이번 대선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는 기회가 되게 해 달라. 최선을 다하겠다.

**정동영**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 원호 대사의 화쟁사상을 현실정치에 옮겨 도덕적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외교대통령이 되겠다.  
 정리=여수형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역주, 포대화상형로

소 병풍  
(관세음보살 본존상)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커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 42 × 50cm  
(대) 42 × 65cm  
60 × 20cm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전주  
 크기 : 8mm × 10mm × 12mm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형로  
(대) 26 × 16 × 16cm 155~600원  
 \*한입가 125,000원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74 송영화

###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면 80°C 이상의 열과 생광광선이 발생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 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 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속옷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C~80°C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냉하신분 ◆손, 발이 차신분 ◆오랫동안 참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기혈분 ◆생리통, 허리통증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 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채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온열복 의료기인증      전지파 환경기인증  
 LIG배상보형 기인      심음실안출원 권

썩픔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픔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운 열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열복대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열침"이 배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배, 허리, 발바닥 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안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영애 / 월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